



04 공감 동화

피터팬

10 읽고 듣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남몰래 흘리는 눈물'

14 생활의 발견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자동차

32 주요 경영활동

스타트업 투자
탄소배출권 확보

통권 제468호 발행일 2020년 11월 9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 · ㈜성환인쇄 02-2273-0583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 동화
[열정] 피터팬

06
고전 속 핵심가치
[최고] 법고창신
과거가 여는 미래

IN 우리 안의 성장판

08
스포츠라이트
흔들림 없는 마음
[양궁과 집중]

10
읽고 듣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남몰래 흘리는 눈물'

12
언제나 건강
차가운 압박
[고혈압 질환]

14
생활의 발견
네 바퀴 집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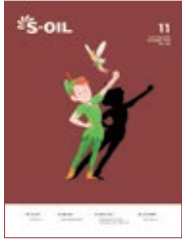
16
이달의 활력평가
11월 탐구영역 [음식]

18
터벅터벅 소도시
[골프 본고장]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22
간이역 산책
작은 꼬마역이 심포 없이 달린다
[광주 극락강역]

26
지식 한 뼛
아프리카 김장독
[팻인팻쿨러]





표지 속 동화

피터팬

동화 <피터팬>은 더 높은 목표로 향하는 도전 의지에 불을 지핍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긍정성은 위기의 순간을 담담히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망루에 오른 피터팬처럼 다가올 내일을 드넓게 바라보며 열정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영남알프스 9봉 완등
결혼 백 번째 달 기념 이벤트

31

함께하는 풍경

울산 태화루
문화예술 공연 후원

32

주요 경영활동

제2 원유하역시설 완공
스타트업 투자 탄소배출권 확보
용인시 스타오일 캠페인 협약

35

단신

마포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푸른장학회 장학금 지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우수기업 선정
울산지역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동참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친환경 우렁이농법 벼 3억 상당 구매
새해 달력 제작

39

임직원 동정

40

팝업 정보창

코로나19 5단계 방역 수칙

42

독자마당

10



28



32



35



22





공감 동화

순수한 마음속 동화를 다시 꺼내드립니다. 익숙한 명작동화로부터 핵심가치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제11화 [열정]

창창한 마음

피터팬

글. 조정현(<동화 넘어 인문학> 저자)



성장이 멈췄다고 열정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피터팬은 언제까지고 모험을 즐긴다. 악어에게 시계 찬 손목을 물린 트라우마로 시계 소리만 들어도 숨어버리는 나약한 후크 선장과 다르다. 동화 <피터팬>은 충분한 자신감으로 스스로와 마주하길 권한다. 날지 못한 웬디를 날아오르게 한 열정의 동력을 생각해본다.

동화 <피터팬>을 탄생시킨 영국 소설가 겸 극작가 제임스 매슈 배리(James Matthew Barrie, 1860~1937)를 두고 영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동화 작가’라 부른다. 40년 이상의 극작가 생활 동안 남긴 수많은 작품 중에서 대표작인 <피터팬>의 모든 저작권을 아동병원에 기부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어릴 적 예기치 못한 형의 죽음으로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작가의 삶도 달라졌다. ‘형이 죽은 열세 살 나이로 성장을 멈췄다’고 회고한 그는 상상의 피터팬을 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켄싱턴 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엮어 마음속 피터팬을 구체화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동화가 <작은 흰 새>다. 이후 <켄싱턴 공원의 피터팬>, <피터팬과 웬디>를 근 4년 주기로 발간하며 전 세계의 동심을 사로잡았다. 제임스 매슈 배리는 작가로서 이룬 성공을 사회에 환원해 영국에서 준남작 지위와 메리트 훈장(예술·과학·문학·공공복지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서야 완역본이 처음 출판됐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 강한 의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높은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림자 상실 극복

피터팬은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아 웬디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림자는 더 이상 피터팬의 발끝에 매달려 있지도, 움직임을 따라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림자를 두고 피터팬은 불안해한다. 심리학에서는 그림자에 대해 스스로 감추고 싶거나 부인하고 싶은 부정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콤플렉스, 트라우마와 같은 맥락이다. 나약함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내면의 그림자와 맞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계를 딛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두운 그림자와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체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안의 양면성을 인정한 가운데 그 위에 일어서는 것이 용기 있는 열정적인 자세다.

“나는 젊음이요, 기쁨이다.
나는 알을 깨고 나온
작은 새다.”

<피터팬>* 중에서

* <피터팬>(제임스 매슈 배리 시공주니어 2019)은 국내 출간된 완역본들을 비교·검토해 원작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완역본이다.

불가능 이기는 긍정

피터팬의 네버랜드에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후크 선장이 산다. 그런데 피터팬과의 마지막 결투에서 후크 선장은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낀다. 피터팬이 칼을 놓친 후크에게 다시 주울 시간을 주자 후크 선장은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정체를 묻는다.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다. 피터팬이 날고뛰는 번덕 심한 어린애가 아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깊은 심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이길 방법이 없음을 직감한다. 피터팬은 마치 후크 선장을 향해 얘기하듯 “열정은 젊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창창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텅커벨의 요정가루를 맞은 것처럼 하늘을 날아 네버랜드로 갈 수 있다. 밝음과 어둠을 명확히 직시하고, 가슴 두근거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든 자신감 있게 날 수 있다. 🌟





法古創新

핵심가치
[최고] 편과거가 여는
미래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경험과 도전 사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연연하다 후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성과를 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의 기회를 살필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 무엇보다 시대와 상황을 꿰뚫어 새롭게 바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변화가 곧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옛것을 따르는 법고론과 새롭게 만들려는 창신론이 갑론을박을 벌이던 조선후기에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것을 전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취에 빠지는 것이 병통(病痛)이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게 걱정이다.

진실로 옛것을 본받되 변화를 알고 새롭게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지금 글이 옛글과 같게 된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변화시킬 줄 알고 새롭게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고전이 된다는 말이다. 이를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고 한다. 법고창신은 기존의 것을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바뀌어가는 의미다. 이른바 선변(善變)의 정신이다. 비슷한 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 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는 말이다. 온고지신이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 가까운 뜻이라면 법고창신은 지혜와 지식으로 고안해내는 데 가깝다. 지향점이 다르다.

법고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法古創新

法

법법

1. 법 2. 방법

古

옛고

1. 옛 2. 선조

創

비롯할 창

1. 비롯하다 2. 시작하다

新

새신

1. 새로운 2. 새롭게 다시

— 이유 있는 변화

한나라 유방의 참모였던 명장 한신은 선변의 정신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는 고작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20만 명의 조나라와 맞섰다.

본래 병법서에서는 전쟁을 벌일 때 산과 언덕을 뒤로 두고 강이나 호수를 앞으로 해 진을 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한신은 반대로 강을 등지는 배수진을 친 뒤 조나라 군대에 맞선다. 지는 척하며 진을 쳤던 강까지 거짓 후퇴를 하기 위함이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조나라 군사는 성을 비워놓고 한신의 군대를 맹렬히 추격했다. 이때를 노려 한신의 병사 2천 명은 조나라 성으로 들어가 한나라의 깃발을 꽂았다.

그 시각 강을 등진 한나라 군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전투의 우열이 엇비슷해졌고 싸움에 지친 조나라 군사는 일단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성에는 이미 한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조나라 군사들이 우왕좌왕 당황한 사이 한나라 군대는 양쪽에서 조나라를 무찔러 이겼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하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을 등지고 싸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병법에는 죽을 곳에 빠뜨린 뒤에라야 비로소 살게 할 수 있고, 망할 곳에 둔 뒤에라야 비로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있소.
그러니 우리 병사들을 죽을 땅에 두어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한 것이오.”

옛것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의 형세를 잘 살펴 변화를 시도한 한신의 지혜가 엿보인다.

최고를 향한 여정 속에 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선변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는 변질도 있다. 김치를 잘 못 익히면 쓰고 시큼하게 변하지만 잘 익히면 맛있게 바뀐다. 우리의 변화는 전통이란 토대 아래 상황이 진행되는 형편을 잘 살피면서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과감한 결단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급변하는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 🌟



핵심가치 [최고]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法古創新

法古創新

法古創新

法古創新

法古創新

法古創新




Archery

흔들림 없는 마음

양궁과 집중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오직 한 사람의 기량과 정직한 숫자로 현장에서 판가를 내는 경기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양궁이다. 상대의 호흡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앞에 세워진 과녁에 얼마나 깊이 집중하느냐가 관건이다. 장애를 딛고 올림픽 무대에 선 이란의 네마티 선수 일화는 마음의 중심에 천착하는 집중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때 그 경기!

차별 없는 실력 경쟁

2016년 8월, 브라질 삼보드로모 양궁 경기장내 아나운서가 한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자 관중들이 유독 큰 환호를 보내며 응원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본선이다.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 경기장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선수는 이란 대표팀 기수로 입장한 자하라 네마티 선수다. 2003년 이란 지진으로 척추를 다친 그녀는 태권도 국가대표 꿈을 접은 대신 뒤늦게 양궁을 시작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활을 잡은 지 6개월 만에 이란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로 발탁돼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녀의 도전은 더 큰 무대를 향했다.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아시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결국 올림픽 티켓을 따냈다. 네마티 선수가 쏜 화살이 10점 과녁에 꽂히자 금메달이라도 딴 듯 관중석에서 축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경기는 세트점수 2대6으로 패했지만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관중석에 고마움을 표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잡학사전

4천55발의 치열한 검증

양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다. 이것은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양궁 올림픽 무대는 네마티 선수를 집중시킨 기회의 과녁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양궁 훈련 과정은 명성이 높다. 한 선수가 7개월 동안 실력 검증을 위해 쏘아야 하는 화살만 4천55발이다. 국가대표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게임에서 지면 세계 랭킹도 무의미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보다 양궁 국가대표로 발탁되기가 더 어렵다고 표현할 정도다. 특히 담력 훈련은 우리나라 양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해병대 캠프, 공동묘지, 야구장에 이어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광화문 광장에 과녁을 세웠다. 소음과 시선들이 주는 중압감을 이기고 집중하는 선수에게 국가대표의 자리가 허락된다.



조직 속 플레이

집중 이끄는 신뢰 속 경쟁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에 선수들은 정중양을 향해 집중의 화살을 쏠 수 있다. 올림픽 8연패, 믿고 보는 효자 종목이라는 수식어는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선발전, 담력을 키우는 훈련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직원들이 합심해 일으켜 세우는 사례가 있다. 조직 위기의 중압감 속에서 구성원이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집중이 중요하다. 조직은 구성원에 충분한 신뢰를 심어주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그 토대 위에 결집된 구성원의 역량은 조직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발이 된다. 🌻





남몰래 흘리는 눈물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가에타노 도니체티
(1797~1848)
이탈리아작곡가

이탈리아 오페라 거장 중 한 명이다. 여의치 못한 집안 환경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할 형편이 아니었지만 가톨릭 성직자 조반니 시모네 마이르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 기본기를 가르쳤다.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 대신 군에 입대했으나 틈틈이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았다. 감미로운 선율과 화려한 가수 음색에 특히 신경 쓴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대표작 <사랑의 묘약> 외에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이 있다.



#네모리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서 흐르네.
쾌활한 아가씨들 부러워하네.
이 이상 무엇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 이상 무엇을 알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고 있어, 나를. 그녀가 나를.
알 수 있지, 나는.

한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가슴의 두근거림이 들리고,
나의 한숨이 뒤섞이네. 그녀의 한숨과.
그녀 가슴의 두근거림이 들리고,
나의 한숨이 그녀의 한숨과
하나가 되네.

하느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이상 아무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 하느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이상 아무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사랑으로 죽을 수 있다면!

#Nemorino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Quelle festose giovani
invidiar sembrò.
Che più cercando io vo?
Che più cercando io vo?
M'ama! Sì, m'ama,
lo vedo, lo vedo.

Un solo istante i palpiti
del suo bel cor sentir!
I miei sospir confondere
per poco a' suoi sospir!
I palpiti, i palpiti sentir,
confondere i miei co' suoi sospir.

Cielo, si può morir;
di più non chiedo, non chiedo.
Ah, cielo! Si può! Si può morir!
Di più non chiedo, non chiedo.
Si può morir! Si può morir
d'amor.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로만차(Romanza)

서정적인 소곡(규모가 작은 작품)으로 시의 각 절에 같은 음악을 반복하는 유절 가곡이다.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대표적인 로만차 형식이다.

스트레타(Stretto)

악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빨라지는 템포를 의미한다. 극적인 흥분과 긴장감의 상승을 위한 장치다.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기악곡의 경우 작품 속에서 클라이맥스에 사용된다.

<사랑의 묘약> 작품 속으로

바스크 지방 시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청년 네모리노는 마음속으로 아디나를 짝사랑한다. 그러나 아디나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어느 날 돈 많고 잘 생긴 바람둥이 벨코레 하사가 마을에 등장해 운명처럼 아디나와 사랑에 빠진다. 절망한 네모리노에게 사기꾼 약장수가 접근해 사랑의 묘약을 건넨다. 꼬임에 넘어가 연거푸 싸구려 와인을 비싼 값에 사 마신 네모리노는 군 입대를 조건으로 돈까지 빌린다. 이때 마을에는 네모리노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동네 처녀들이 모두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 아디나의 마음도 요동친다. 결국 벨코레 하사와 약속한 결혼식을 미룬 채 네모리노를 찾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묘약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디나는 네모리노가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군 입대를 조건으로 돈까지 빌렸다는 말에 감동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식장으로 입장한다.



서글픈 단조 유쾌한 반전

#1

1시간 7분 박수 세례

#2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노래 예술의 극치를 추구)의 대가인 도니체티의 명작이다. 완전한 코믹 오페라로 오페라 부파(희극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이다. 고대부터 구전으로 전해진 설화 <트리스탄>의 내용을 모티프로 했으나 결말이 다르다. 묘약을 마신 남녀가 모두 죽는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이다.

총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무정한 이죽데', '마을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등 아리아가 유명하다. 아디나는 소프라노, 네모리노는 테너, 벨코레 중사는 바리톤, 돌카마라는 베이스, 자네타는 소프라노가 부른다. 장조와 단조가 빠르게 교차하며 활기찬 음악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번갈아 나타난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테너인 네모리노가 부르는 아리아다. 마음 속 깊이 사랑했던 아디나와 온갖 사건을 겪은 뒤 사랑을 확인한 마음을 노래한다. 이야기의 흐름대로라면 흥겹고 경쾌한 선율이 나와야 하지만 바순의 서글픈 단선율로 시작되는 점이 독특하다. 오페라의 대본을 맡았던 펠리체 로마니가 아리아의 선율이 결정적인 순간 흥을 깨버린다고 도니체티에게 수정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초연 무대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아리아는 훗날 세계인이 사랑하는 아리아 중 하나가 됐다.

이 노래는 테너가 극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테너의 오페라'라고 불린다. 대표적 인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다. 1988년 도이치오퍼 공연 당시 네모리노 역으로 1시간 7분 동안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때 165회의 커튼콜 기록을 달성해 기네스북에 올랐다. 🌟



언제나 건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차가운 압박

고혈압 질환

피부가 찬 공기와 접촉하면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높을수록 추위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뚜렷해져 심근경색이나 발작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10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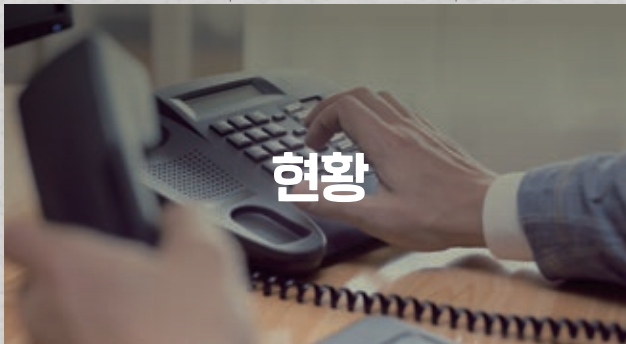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질환

11월
고혈압
질환

12월
만성
신장병



현황

비대면 전화 진료 문의 '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보면 고혈압이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지는 선행질환인 만큼 평소 혈압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0대 인구 20~40%가 고혈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2019)에 따르면 40대 인구 20~40%가 고혈압 질환이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30대도 11%로 나타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원인

가족력·생활습관이 중요

유전적 성향이 강해 부모 중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비만과 스트레스, 음주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질환과 고지혈과도 연관성이 높다. 체중 1kg 이상 감소할 때마다 혈압강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가 점검

- ☐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즐김 / ☐ 일상생활 중 피로감을 쉽게 느낌 / ☐ 목덜미가 자주 빠근함 / ☐ 이명이 자주 들림 / ☐ 주 3회 이상 음주 / ☐ 가족력이 있음 / ☐ 운동량이 거의 없음 / ☐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냄 / ☐ 가끔 가슴이 울렁거림

*고혈압 위험도 4개 이상은 정확한 검사와 진단 필요

OX 퀴즈

젊은 층보다 노령층 환자가 더 위험하다? (X)

40세에 고혈압 질환이 발병하면 75세 노인보다 오랜 기간 합병증을 앓게 되는 셈이다.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O)

평소 다혈질이거나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X)

증상이 없어도 혈압 검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고혈압에 노출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합병증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의 전조증상은 없으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뇌졸중·동맥경화·심근경색·협심증·안저출혈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주요 합병증 '뇌졸중'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뇌혈관이 딱딱해져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식장애 또는 손발마비 등 후유증을 남기는 중증질환인 만큼 고혈압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검사

혈압 측정 권고

40세 이상 성인은 물론 연령층과 상관없이 비만이나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 해마다 혈압을 측정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18~39세는 3~5년 주기로 측정한다.

- ▷ 정상혈압 120/80mmHg
- ▷ 고혈압 주의 130/85mmHg
- ▷ 1기 고혈압 140/90mmHg 이상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혈압 측정 30분 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고 앉은 자세로 휴식한 뒤 측정한다.

생활수칙

약물 치료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1기 고혈압의 경우 생활습관 조절을 선행하지만 대부분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돼도 선불리 중단해선 치료 효과가 없다.

비약물 치료

금연과 절주는 기본, 운동과 저염식이 특히 중요하다.

▷ 유산소 운동

걷기·조깅·등산·자전거 타기·수영 등(하루 30분 이상)

▷ 저염식

염분이 많은 국물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 장류와 가공식품은 자제 *1인 나트륨 권장량 10g 이하



생활의 발견

어디에나 쓰이고 누구에게나 유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옥사이드 소재의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봅니다.

네 바퀴 집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자동차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기초 원료로 하는 폴리우레탄은 열을 가해 쉽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고 열이 식은 뒤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볍고 탄성이 좋아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효자 재료다. 특히 자동차 내외장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는 자동차나 가구의 쿠션, 건축 보온재 등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polyol)의 기초 원료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생산하며 물 이외에는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폴리우레탄

고분자화합물질인 폴리우레탄은 관련 품목을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열성·내마모성·신축성이 뛰어난 농구공, 스판덱스, 침구 매트리스 등을 떠올리면 된다. 경량화 소재로도 각광받아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PO, propylene oxide)

- ✓ 자동차나 가구의 쿠션, 건축 보온재 소재로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기초 원료
- ✓ 우리회사 연산 30만톤 생산

감수. 김병민(한림대 나노융합스쿨 겸임교수)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차 위셔액 속 석유화학'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용 코팅재

적군도 보호한 폴리우레탄 연구소

폴리우레탄의 역사는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화학 기업 베이어가 개발한 고분자 화합물이다. 당시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나일론의 대항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활용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 단순 플라스틱이 아닌 연·경질 폼, 접착제, 코팅재로서 탁월한 기능을 발견한 독일은 탱크와 비행기, 잠수함 등 군사용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연합군이 독일의 베이어 연구소만은 폭격을 피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비행기와 같은 특수 산업에 국한해 사용된 폴리우레탄은 미국 듀폰사의 라이크라 브랜드와 일본 스판덱스 브랜드를 통해 자동차, 섬유 등 일상 전반으로 쓰임이 확대됐다.



플라스틱 자동차

비행기에서 자동차로

폴리우레탄으로 혁신적 전환점을 맞은 산업 분야가 자동차다. 196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내부를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플라스틱 자동차를 출품했다. 차체 전반을 강철로 제작한 기존 차량에 비해 더 가볍고 안전함을 인정받았다.



친환경 신소재

탄소 발자국 줄이는 새로운 가능성

폴리우레탄은 자동차뿐 아니라 생활 소비재 제조 방식의 혁신을 가져온 대표 소재지만 재 활용하기 까다로운 물질이다. 그런데 올해 초 폴리우레탄을 생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에서 발견한 미생물은 폴리우레탄 내 특정 화합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화학결합을 끊어낸다. 과학 저널 <미생물학 프런티어스>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재활

용이 어려운 폴리우레탄의 맹점을 극복하는데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한 외장재

가볍고 조용하면서 강한 차체

자동차 업체마다 더 가벼운 차량을 만들기 위해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는 가운데 내장재로 주로 쓰이던 폴리우레탄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내장재로서 이미 우수한 기능을 인정받은 만큼 폴리우레탄을 외장 범퍼와 타이어, 소음을 줄이는 일부 영역(흡·차음재)에도 적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차체의 경량화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폴리우레탄은 가장 적합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달리는 소파

내구성 우수한 인조 가죽

자동차 내장재를 집안의 인테리어에 비유하자면 시트는 집 분위기를 좌우하는 소파다. 자동차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하차할 때까지 신체에 가장 오래 닿는 부분인 만큼 존재감이 남다르다. 오늘날 자동차 시트 구조로 나누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50년대에 들어서야 운전석과 조수석이 구분되면서 비닐로 만든 시트의 소재도 변했다. 합성피혁에 폴리우레탄을 입혀 제작하는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내구성이 우수해 주로 쓰인다. 





11월

탐구영역 [음식]

문화

1. 토월토일(土月土日)이 가리키는 날은?

- ① 추수감사절 ② 농업인의 날
③ 빼빼로데이 ④ 핼러윈데이

2. 채식을 일컫는 비건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 중 관련 식재료가 아닌 것은?



① 꿀



② 코코넛



③ 젤라틴



④ 콩

3.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김치 재료는?



① 배추



② 무



③ 갯



④ 오이

기술

4. 땅에 묻는 김장독 원리를 바탕으로 한 김치냉장고의
최적온도는?

- ① 영상 3℃ ② 영상 2℃
③ 영하 1℃ ④ 영하 3℃

5. 30층 규모 빌딩농장이 5만 명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비유되는 도심 속 농작물 재배기술은?



- ① 수평농업
② 수직농업
③ 가로농업
④ 세로농업

6. 다음 우주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금·후추·설탕 등 가루 조미료는 액체 상태로 제공된다.
② 현재 우주식량 종류는 200여 종이다.
③ 우주식량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영양소는 칼슘·칼륨이다.
④ 우주식량은 싱겁게 만들어진다.

7. 품질은 같지만 흠집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를
활용한 식품 용어는?

- ① 리퍼브 식품 ② 잉여 식품
③ 업사이클 식품 ④ 바이오 식품

정답·해설

1. ② 농업인의 날

*자료 : 농촌진흥청

한자 土 = ‘+ (십)’ + ‘- (일)’ 모양에 착안해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함께 산다는 뜻에서 농민들의 궁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2. ① 꿀 ③ 젤라틴

*자료 : 한국채식비건협회

비건 식품은 단순한 채식 개념을 넘어 동물에게서 얻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데 의미를 둔다. 꿀과 젤라틴은 각각 벌과 동물 외피 등을 통해 추출한다는 의미로 비건 식품에서 제외한다.

3. ② 무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배추와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최초의 김치는 고려시대 기록(이규보 <동국이상국집>)을 통해 전해지는 동치미다. 찐지, 장아찌 등도 배추보다 앞선 김치 종류에 속한다.

4. ③ 영하 1℃

*자료 : 세계김치연구소

일반 냉장고는 영상 2~5℃, 김치 냉장고는 영하 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12~2월 땅속 30cm 지점의 평균 기온이 영하 1℃라는 데 바탕을 둔 결과다. 영하 1℃ 상태에서는 얼지 않은 상태로 류코노스톡균(특유의 상큼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유산균) 1천만 개체 안팎의 수치가 4개월 이상 고르게 유지돼 김치가 시지 않고 상큼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5. ② 수직농업

*자료 : 농촌진흥청

햇빛을 모방한 LED로 햇빛과 흙 없이 모든 식물이 동일한 양의 빛·물·영양분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도심 속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7호선 상도역사 내에 수직농장 ‘메트로팜’을 처음 선보여 일반인에 체험을 제공한다.

6. ④ 우주식량은 싱겁게 만들어진다.

*자료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현재 우주식량으로 등록된 종류는 200가지가 넘는다. 우주 비행사는 우주정거장(ISS)으로 가기 전 미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형 우주식량은 김치, 볶음김치, 고추장, 된장국, 밥, 라면, 비빔밥, 불고기, 미역국, 바지락죽, 사골 우거지국, 카레, 닭죽, 닭갈비, 상주곶감 초콜릿 등이 있다.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는 미각이 둔해져 더 달고 짜고 맵게 만들어진다.

7. ③ 업사이클 식품

*자료 : 홀푸드(Whole Foods)

지속가능한 식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업사이클 식품(Upcycled Foods)이 각광받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뿐 아니라 해당 재료의 생산과 운송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미국 최대 친환경 식품 유통체인 홀푸드(Whole Foods)가 발표한 ‘2021년 식품 트렌드’에도 선정됐다. 🌱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런던~에든버러
(비행기 약 15시간, 경유지에 따라 상이)

시차

한국보다 9시간 느림
(서머타임 기간에는 8시간)

화폐

파운드(1파운드 ≈ 1,470원)

교통수단

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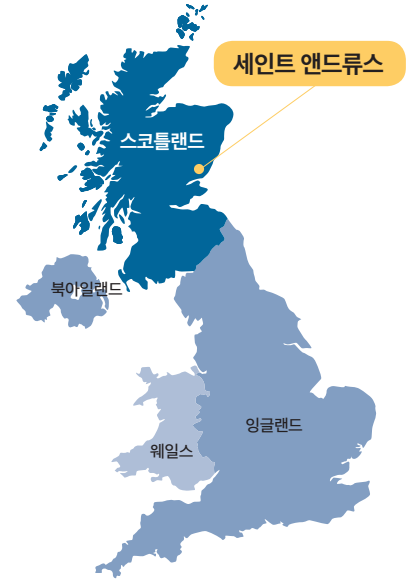
시간 속 스윙

[골프 본고장]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글. 장인혜(여행작가)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는 영국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역사다. 인구 약 1만7천 명의
소도시에 불과한 듯 보이는 이곳에
500년 역사의 골프 명성이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와
세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인
디 오픈 챔피언십이 시작된 이곳은
전 세계 골퍼들에게 꿈의 그라운드다.



권위와 전통이 있는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발전할 수 있었다.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골프다. 시초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중세 시대 세인트 앤드류스 주변의 해안 모래 위에서 긴 나무 막대기와 공을 가지고 즐기던 놀이가 현대 골프의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최초의 골프 기록은 1457년 제임스 2세가 군인들이 골프에 빠져 궁술 훈련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골프 경기를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빅토리아 산업 혁명으로 골프 장비와 골프공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화려하고 멋진 필드를 자랑하는 최신 골프 그라운드에 비하면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의 규모나 조경은 다소 소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골퍼들에게 올드 코스는 꿈의 그라운드로 여겨

진다. 골프 역사의 시작이자, 디 오픈 챔피언십(The Open Championship)의 전설의 골퍼들이 우승한 곳이기 때문이다. 1860년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처음 개최된 디 오픈 챔피언십은 피지예이 챔피언십(PGA Championship), 유에스 오픈(U.S. Open), 마스터스 토너먼트(Masters Tournament)와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에 속하면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해마다 7월 중순에 개최되며 우승자에게 은 주전자 모양의 트로피인 클라렛 저그(Claret Jug)를 수여한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세인트 앤드류스는 골프 외에도 매력적인 소도시의 풍경과 역사를 느낄 수 있다. 1413년 설립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 6명을 배출했고,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캠퍼스 커플로 만난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 부부다.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과 고성엔 중세시대 화려한 번영을 느낄 수 있다.

❶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 (St. Andrews Cathedral)

14세기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당이자 스코틀랜드 종교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뒤 성당 대부분이 훼손됐다. 지금은 아치 벽과 타워만 남아있지만 당시의 화려한 역사와 웅장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❷ 세인트 앤드류스성 (St. Andrews Castle)

해안가 옆에 위치한 고성이다. 폐허로 남은 이곳에서 12세기부터 잉글랜드와의 독립전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치열한 역사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축축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죄수들이 고통을 당한 악명 높은 지하 감옥(Bottle Dungeon)으로도 유명하다.

❸ 세인트 앤드류스 웨스트 샌즈 (St. Andrews West Sands)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해안 상'을 수상한 멋진 해변이다.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 골프장을 따라 3km 넘게 이어진다. 영화 <불의 전차> 오프닝 장면에도 등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부드러운 모래를 느끼며 이국적 풍경을 만끽하기에 최적이다. 🌊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명소

영국 골프 박물관 (British Golf Museum)

www.britishgolfmuseum.co.uk

골프팬이라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으로 1만7천 점이 넘는 골프 유산이 전시돼 있다. 18세기 골프 경기의 규칙을 손으로 적은 오래된 문서부터 영국 골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톰 모리스(Tom Morris)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 초창기의 디 오픈 챔피언십 메달과 우승컵 등을 볼 수 있다.

세인트 앤드류스 왕립 골프 협회

(The Royal & Ancient Golf Club of St.Andrews)

www.randa.org

1754년 귀족·교수·지주 등으로 이뤄진 22명이 모여 설립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클럽은 윌리엄 4세의 후원을 받아 왕립 골프 협회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얻게 됐다. 세계 골프규칙을 제정하고 디 오픈 챔피언십을 후원하는 골프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 (Standrews Link)

www.standrews.com

전 세계 골퍼들의 꿈의 그라운드인 올드 코스를 비롯해 총 7개의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리조트다. 1552년 개장한 올드 코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코스로 여겨진다. 1860년 여기에서 시작된 디 오픈 챔피언십도 5년에 한 번은 꼭 이곳에서 경기를 치른다. 일반인 대상 단기 퍼팅 클래스 등 다양한 골프 레슨도 진행한다.



간이역 산책

각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옛 철도역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간이역 풍경 속에서 낭만 서린 추억을 되짚습니다.

작은 꼬마역이 쉽표 없이 달린다

광주 극락강역

사진·글. 유지혜(홍보팀)



‘간이역’ 하면 운행을 멈춘 폐역을 먼저 떠올린다. 극락강역도 마찬가지다. 지역민 중에도 이곳에 기차가 정차하는지 아는 이는 드물다. 통근열차만이 유일하게 머물다 가는 극락강역은 의외로 방문객 맞이에 하루가 분주하다. 가장 작은 꼬마역이 놀랍도록 활기차다.





1 100년 명맥 잇는 간이역

예부터 광주지역에서는 영산강을 두고 극락강이라 불렀다. 1922년 강폭이 넓은 극락강 주변에 소규모 인구만이 거주해 당시 민간 철도 회사인 전남 철도 주식회사에서 철도를 개설했음에도 열차 이용객은 적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극락강 백사장에 수영장을 지어 홍보하면서 기차 타고 방문하면 철도요금 50%를 할인해주는 등 이벤트를 펼친 덕에 철도 이용객이 점차 증가했다. 원활히 운영되는 듯했지

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실돼 1958년에야 신축 준공됐다.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이곳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KTX끼리 교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던 역이었다. 지금은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역으로 가는 KTX 운행이 중지돼 교행 장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인근 신가지구와 운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용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아련한 감성 돋는 철길 옆
바람개비가 인사를 건네듯
힘차게 돌아간다.



▲
원형 그대로를 간직한
극락강역은 한국철도공사 지정
철도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
간이 건널목 차단기와
코레일 제복·안전모를 비치해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통근열차는 편도 1천 원으로
하루 16회 정차한다.



극락강역 풍경

통근열차

무도촌

2 천 원 통근열차의 낭만

극락강역은 역무원이 있는 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간이역이다. 흑백사진이 걸려있는 대합실 매표소에서 통근열차 표를 구입하다 보면 사진 속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일렁인다. 이곳 맞이방에서 역무원 의상 대여와 기념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기차 운치를 제대로 느끼려면 통근열차에 올라야 한다. 광주송정역에서 7분이면 극락강역이다. 편도 기준 하루 16회 열차가 정차한다.

역 주변에는 '동양'이라고 적힌 시멘트 사일로(원통형 창고)가 흔하게 눈에 띈다. 바로 극락강역에서 취급하던 동양시멘트 사일로다. 철길과 시멘트 구조물의 정취가 거칠면서도 투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988년부터 취급해오던
벌크양회 화물 처리가
2010년 이후 중단됐다.
시멘트 사일로는 지금도 남아있다.



극락강역은 역무원이 있는
배치 간이역으로 직접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다. 역사 내에는
대한민국 철도 변천사와
축제, 홍보단 모습 등이
전시돼 있다.



▶
극락도사가 소원을
들어준다 하여
직접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는 공간이다.



▲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조물들이 정겹다.

극락강역 공간

동근원차



포토존

3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아련한 옛 감성이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는 요즘 극락강역은 젊은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지난해까지 흥미로운 연말연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극락강역 이름에서 착안해 방문하는 누구든 무료로 향아리, 나무표지 등을 활용해 극락도사에게 새해 소망을 남길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철도제복체험, 역장투어, 역무체

험, 전통차 강의, 다도체험 등 계절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했다.

2019년 한국철도 본사에서는 '기특한' 일당 백 꼬마역에 최우수 테마역의 영예를 안겼다. 이에 힘입어 사람들의 꿈을 싣고 기차는 계속 달린다. 🌟

▼ 쉼터와 포토존을 겸하는 야외 공간이 운치를 더한다.





지식 한 뼘

인류애가 낳은 따뜻한 과학에 주목합니다. 환경과 문화, 관습, 경제 등 글로벌 지역 여건을 배려한 적정기술을 들여다봅니다.

아프리카 김장독

제3세계 주민들이 겪는 큰 불편으로 음식물 보관을 꼽을 수 있다. 전력 상황마저 열악해 고가의 냉장고가 있다면 제대로 가동하기 어렵다. 하지만 흙으로 만든 냉장고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기, 복잡한 냉각기술, 값비싼 비용 없이 흙과 물로 냉장기능을 구현해냈다. 토기 냉장고인 팻인팻쿨러다.

팻인팻쿨러

글. 김찬중(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저자)

팻인팻쿨러의 가치는?

☑ 효과

신선한 채소 보관·판매 통해
농가 수입 증대

☑ 기술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원리의 적정기술

☑ 보급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물과 토기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

물의 기화열 이용한 항아리 냉장고 팻인팻쿨러

두 개의 항아리와 모래, 물만으로
기화열 원리를 통해 온도를 낮추는
적정기술 프로젝트

- ▶ 항아리 크기에 따라 1.4~4달리 가격
- ▶ 20일 이상 채소 신선도 유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기술로서
196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지역의 문화·관습·경제·환경에 적합한 간단한 기술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서
'적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보수·사용법이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고대 용기에서 착안한 토기 냉장고

나이지리아의 모하메드 바 아바(Mo-hamed Bah Abba) 교수(이하 아바)는 교통·인프라·전기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이 철이 지나면 썩어 버려지는 것을 보며 식품 저장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항아리에 물을 담거나 기화열을 이용해 식품을 보관하던 고대의 토기 기록은 좋은 교과서였다. 토기장이 가문 출신답게 토기 제작과 사용에 관한 지식에 해박한 아바 교수는 북나이지리아 농촌지방의 해고된 작업자들을 고용해 항아리 쿨러 1만 개를 제작했다. 팻인팟쿨러 고안으로 그는 2001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롤렉스 어워드(Rolux Awards for Enterprise)*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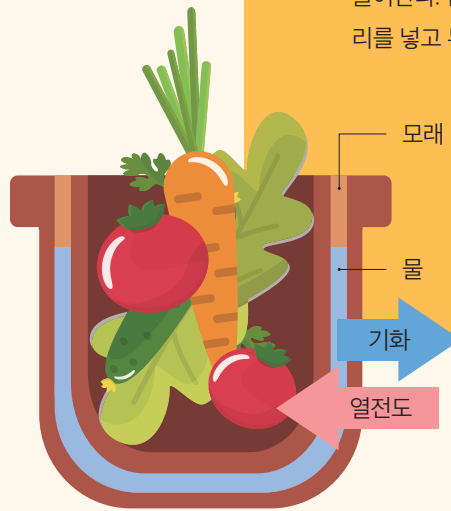
*롤렉스 어워드

스위스 롤렉스사가 세계 최초의 방수 손목시계 출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6년 출범한 시상이다.

-20℃

물과 흙으로 빚어낸 냉장 기술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서 사용하는 토기 냉장고는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배치했다는 뜻에서 팻인팟쿨러(Pot-in-pot cooler)라 부른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천연 냉장고다. 진흙을 빚어 초벌 항아리를 만들고 가마에서 구워내면 항아리에는 서로 연결된 작은 구멍들이 생긴다. 우리나라 장독에도 이런 구멍들이 있어 이곳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장독 안으로 들어간다. 원리는 간단하다.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두 항아리 사이를 모래로 채운다. 작은 항아리에는 채소나 과일을 담고 항아리를 젖은 천으로 덮는다. 항아리를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는다. 한낮 온도가 30~45℃가 될 때 물의 기화 원리를 통해 팻인팟쿨러 내부 온도는 13~22℃로 내려간다.



1 만개

20 일

소득·일자리·보건 기여

토마토를 냉장보관하지 않을 경우 3~4일이 지나면 썩지만 팻인팟쿨러 안에서는 20일 이상 신선도를 유지한다. 다른 채소의 보관 기간도 혁신적으로 늘었다. 덕분에 부패된 채소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을 감소시켰다. 농가의 소득증대도 창출했다.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면서 지역의 구입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고 보다 높은 가격에 채소를 판매해 수입이 증가했다. 더불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가장 혁신적 성과를 거둔 부분은 백신·의약품 저장고로 기능한 것이다. 특별한 냉장장치가 없는 지역에서 보관에 한계가 있었던 백신이나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되면서 보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4 달러

저비용·고효율

기화는 액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증발열이라고도 한다. 운동 뒤 시원해지는 것도 땀이 기화열을 흡수해 증발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기 안에 채소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은 150ℓ가 적정하지만 용기 크기를 조절하면 최대 5천ℓ까지 채소를 보관할 수 있다. 팻인팟쿨러는 열매 수확 뒤 남은 채소나 과일을 저장하는데 사용한다. 날씨나 수요를 고려해 물의 기화 조건을 최적화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kg의 채소를 담아서 2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가격은 1.4달러다. 큰 용기도 4달러에 불과해 매우 저렴하다. 팻인팟쿨러는 현재 나이지리아 11개 주 외에 카메룬, 니제르, 차드, 콩고 등에 보급됐다.





두런두런 이야기방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우의 사연을 실습니다.



뚜벅뚜벅 정상 오름길

영남알프스 9봉 완등

글. 피준호(탈황1팀)

일상 탈출, 산행의 시작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동료들과 달마다 가졌던 월례회의도 연거푸 취소돼 아쉬움이 크다. 지난여름 대왕암까지 35km를 거닐며 사색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집에서 간절곶까지 야간 하이킹을 진행한 게 그나마 작은 활력이 됐다. 최근 동료들이 영남알프스 아홉 봉우리 완등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목표를 계획했다. 여러 정보를 수합해보니 총 네 번에 걸쳐 완등하는 코스가 부담이 없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9월 15일 첫 번째 산행 목적지인 가지산과 운문산을 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병 하나만 챙겨 나섰다. 선택한 코스는 밀양 상양마을에서 주차를 하고 아랫재를 거쳐 가지산 정상에 오른

뒤 다시 아랫재로 내려와 운문산 정상을 탈환하고 아랫재로 다시 내려와 상양마을로 복귀하는 코스다. 등산코스가 티(자) 모양이라 ‘티환’ 중 주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랫재까지는 길이 완만했지만 가지산 능선까지는 진짜 등산이었다. 능선 상단까지 가파른 산행길이 이어졌다. 출발한지 2시간 뒤인 11시 10분경 가지산 정상에 도착했다. 잠시 다음 일정이 막막했지만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아랫재로 내려온 뒤 운문산으로 향했다. 하루에 2봉을 탈환한 기분은 짜릿했다.

두 번째 산행은 문복산과 고현산이다. 이번 산행에는 탈황3팀 동료와 함께했다. 지난 산행을 교훈 삼아 간식도 충분히 준비했다. 고현산은



Day 1



Day 2



외항재에 주차하고 정상에 오른 뒤 다시 외항재로 돌아오는 코스다. 좁은 그늘진 숲길을 지나자 가파른 길이 이어졌다. 능선을 따라 20여 분을 걸으니 고현산 정상이 보였다. 하산까지 왕복 2시간 30분 소요됐다. 가쁜 마음으로 문복산으로 향했다. 정상까지 오르막이었지만 그늘길이라 덜 힘들었다. 조망이 괜찮은 문복산 드린바위에 들러 사진을 남긴 뒤 두 번째 산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료와 발맞춰 9봉 완등

세 번째 산행은 9월 22일 평일로 잡았다. 천황산과 재약산이 목적지다. 9봉 인증메달을 받겠다는 욕심이 컸지만 이제 산행 자체로 기대가 됐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천고지의 산들이 있음에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오를 때는 밀양 얼음골에서 케이블카를 탔다. 40여 분을 걸어 천황산 정상에 도착해 멀리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풍경을 감상했다. 정상에서 재약산으로 내려가는 구간엔 바위절벽도 경치가 일품이었다. 초록 물결 속 시원한 바람이 새삼 소중했다. 천황재의 역사폴도 사진에 포근히 담았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출발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재약산 정상을 탈환했다.



Day 4



Day 3



마지막 산행 코스는 신불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영축산을 찍고 신불산 정상을 탈환한 뒤 간월산을 정복하는 3산 원점회귀 산행이다. 개인적으로 신불산 자연휴양림은 애정하는 장소다. 울산12경 중의 하나인 파래소폭포도 이곳에 있다. 가지산, 운문산에 비하면 트래킹 정도로 가뿐했다. 그렇게 40여 분을 걸어 영축산과 신불산이 갈리는 이정표에서 영축산 방향을 택했다. 오르는 길이 생각보다 좁았다. 곧 영축산 정상에 당도했다. 안개 탓에 멋진 전망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가볍게 목을 축인 뒤 신불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능선을 따라 나무계단과 데크가 잘 조성돼 있었다. 긴 계단과 오르막길을 두벅두벅 걷다보니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다. 역시나 안개로 인해 풍경 감상은 힘들었지만 9봉 완등까지 한 곳만을 앞둔 터라 막판 힘을 냈다. 신불산에서 간월재를 거쳐 간월산으로 향하는 길에 간단한 간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지금까지 등산로에 비하면 험한 바위들이 있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정상을 향한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다. 간월산 정상은 장엄한 경치로 우리를 맞았다. 모든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했다. 나의 첫 9봉 완등에 도움을 준 동료와 마무리까지 함께할 수 있어 더 의미 있었다. 코로나19가 아야간 일상에 간헐있기보다 산행과 같이 건강하고 보람된 탈출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



견고한 사랑의 약속

결혼 백 번째 달 기념 이벤트

글. 이상준(기술교육팀)

2020년 10월 3일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개천절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다.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지 백 번째 달이 되는 날이다.

2012년 6월 3일, 지금의 아내에게 두 손 꼭 잡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의 감동이 떠오른다. 나의 장애는 물론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기꺼이 손을 잡아준 아내가 고맙고 여전히 사랑스럽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순간도 맞닥뜨렸지만 덕분에 사랑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연애시절을 제외하고 결혼 뒤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지 못했지만 사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 눈치 빠른 아내를 속이기 위한 결혼 백 번째 달 기념일 이벤트다. 달마다 6만 원이면 충분했다. 1만 원씩 결혼일 3일에 맞춰 자동이체 통장을 개설하고 남은 5만 원은 따로 보관해 신혼여행 때 아내가 눈여겨 본 반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1만 원씩 100회가 찍힌 100만 원 통장과 꽃다발, 커플 반지, 사랑을 가득 담은 카드를 준비하며 올해 10월 3일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 뜻밖의 불행한 소식도 찾아왔다. 아내의 위암 진단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하면서 우리 부부의 심신은 점점 지쳐갔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내에게 외식을 제안하며 모처럼 부부의 시간을 가졌다.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준비한 통장을 내밀며 그동안의 계획을 풀어내자 아내는 이내 울음을 터트렸다. 식사를 마친 뒤 커플 반지도 함께 사러 갔다. 환하게 웃는 아내의 미소를 보니 신혼여행 때로 돌아간 듯했다. 항암치료를 잘 견뎌낸 아내는 현재 보조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



“정미야,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한다.
우리 평생 건강하게
알콩달콩 살자.”





함께하는 풍경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의 시간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예술 가득 희망의 거리 두기



울산 태화루 문화예술 공연 후원

글. 이원정(대외업무팀)

재건 6주년을 넘긴 태화루가 태화강변을 굳건히 지키며 올해 <태화루의 사계 풍류> 무대를 품었다. 우리회사는 2011년 태화루 재건 당시 건립비 100억 원을 전액 기부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예술 복원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태화루에서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태화루는 영남 3루 가운데 하나로 임진왜란 때 소실돼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울산의 선도적 기업시민으로서 우리회사가 시민들과 뜻을 모은 결과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태화루에서 열리는 문화예술공연 '풍류'는 울산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시민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시민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무대 안팎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확인, 체온 측정 등

을 거치고 객석도 거리 두기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

공연은 울산에총 소속 예술인 50여 명이 출연한 가운데 총 5개 파트로 구성됐다. '태화루 누각의 봄', '대숲의 여름', '태화강의 가을', '용금소의 겨울' 등 테마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고, 끝으로 모든 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울산'을 희망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탁 트인 야외에서 모처럼 공연장을 접한 시민들은 거듭되는 공연 프로그램에 서서히 긴장을 풀고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향취를 즐겼다. 



새 시설로 일구는 운영 안정성

제2 원유하역시설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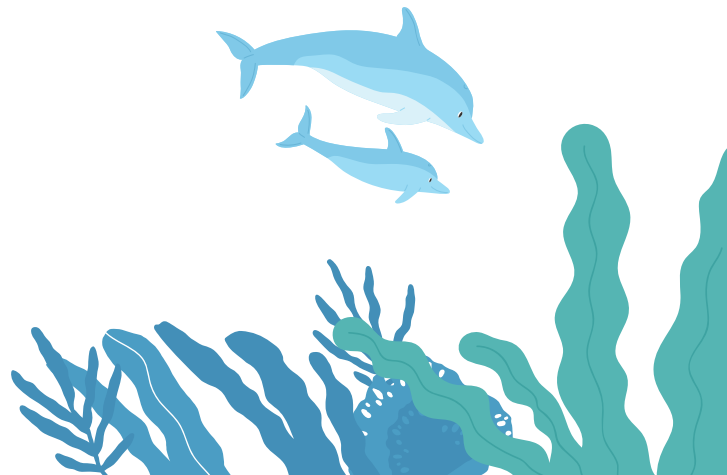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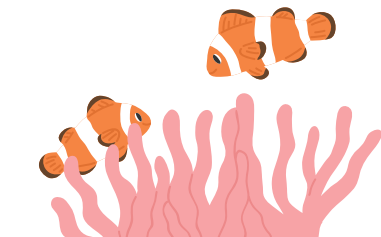
우리회사가 울산공장의 두 번째 원유하역 시설(No.2 SPM) 건설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건설된 두 번째 원유하역 시설은 울산시 울주군 당월리 앞바다에 설치된 원유 부이(buoy)를 비롯해 직경 약 1.1m(44인치)의 해저 배관(3.7km)과 육상 배관(3.0km), 원유선 하역량 증대를 위한 부스터 펌프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 승인 이후 설계·인허가를 포함한 총 건설기간은 31개월로 당초 목표보다 앞당긴 을 10월 준공했다. 투자비는 1천720억 원이다.

해상 원유하역 시설(SPM, Single Point Mooring)은 대형 유조선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심이 깊은 해역에 앵커를 이용해 원유부이를 고정하

고 해저송유관을 통해 육상 저장탱크로 원유를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회사는 1980년 공장 가동과 함께 설치한 기존 원유 부이(No.1 SPM)를 이용해왔다. 뒤이어 공장 증설로 인해 원유 처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부이 건설을 추진했다.

새롭게 건설된 두 번째 원유부이는 최신 설계 기술과 원유부이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 설비 신뢰도와 운영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정 안정 운영과 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복수의 원유하역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기상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효율적인 원유 재고 관리와 후속 공정의 정상적인 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유선의 체선료와 원유 긴급 임차비용을 감축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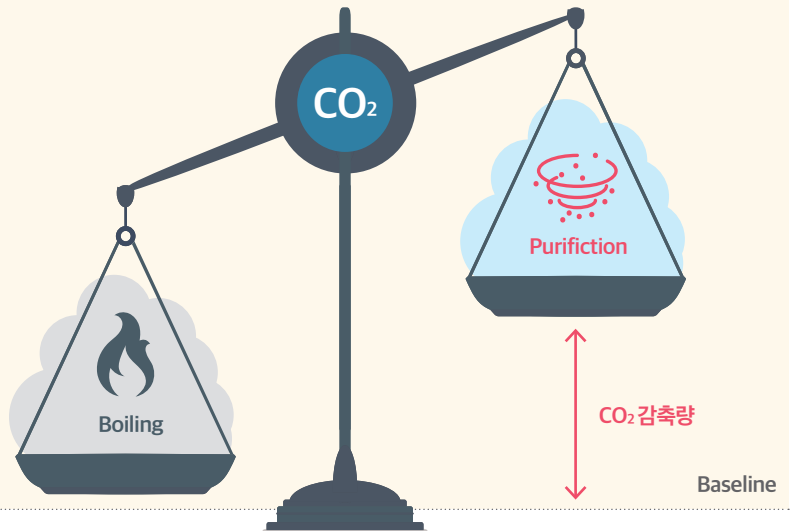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순환 투자

스타트업 투자 탄소배출권 확보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된다.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지구촌 공동사업의 하나다.

개발도상국 식수설비 사업 투자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우리회사가 기술 투자에 기초한 사회공헌으로 지구환경 수호까지 도모하는 순환 구조의 사업 확장을 이어간다.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우리회사는 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체 ‘글로리엔텍’에 투자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연간 1만 3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중소 스타트업 후원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회사는 기후변화를 당연한 과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전사 탄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존 울산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6%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8년에 울산공장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를 bunkerC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직접적 활동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도 보폭을 맞춘다. 2019년부터 미얀마에 고효율 쿽스토브를 무상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얀마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

한걸음 성장 두걸음 상생

용인시 스타오일 캠페인 협약

우리회사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 캠페인 협약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우리회사는 10월 28일 경기도 용인시와 스타오일 캠페인* 협약을 맺고 용인시 소재 계열주유소를 통해 11월 중 시행에 돌입했다. 이 소식은 YTN, MBN, KBS 경인 등 방송 뉴스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10월 28일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서 안종범 수석부사장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나 캠페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전국에 분포한 우리 계열주유소 확대 시행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스타오일 캠페인은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타오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또는 스타오일 멤버십 카드를 보유한 장애인이 스타오일 캠페인 주유소에 오면 주유원이 직접 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시에 소재한 우리 계열의 셀프주유소는 스타오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협약의 의미를 더욱 빛내고 있다.

우리회사는 용인시와 함께 협약주유소에 캠페인 협약 현판을 부착하고 현수막·배너를 게시해 스타오일 캠페인 홍보를 시행한다. 아울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하는 주유소 대상으로 캠페인 취지, 참여방법 등 안내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으로 셀프주유소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알려 불편 없이 주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뉴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타오일 캠페인

‘스타오일’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셀프주유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회사가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캠페인으로서 장애 없는 주유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우리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마포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우리회사가 본사 사옥이 위치한 서울 마포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10월 15일 마포구청(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에서 진행됐다. 류열 사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박홍섭 전 마포구청을 만나 지원금을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이웃과 유대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2017년부터 마포인재육성장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기부금은 ‘에쓰-오일 햇살나눔 장학금’으로서 마포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쓰인다.



푸른장학회 장학금 지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우리회사가 푸른장학재단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10월 29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한 기부금은 울산지역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돼 학자금으로 쓰인다. 우리회사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푸른장학재단을 통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우수기업 선정

우리회사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열린 2020년 ESG 우수기업 시상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회사는 ESG 우수기업상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여덟 차례나 수상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0월 27일 한국거래소 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 중에서 우리회사를 포함해 총 8개사만이 ESG 우수기업에 등극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한국거래소 산하의 비영리단체다. 해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해온 가운데 2011년부터는 평가 결과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탁월한 기

업을 대상으로 ESG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ESG 우수기업에 여덟 차례나 선정된 것은 우리회사가 지속가능성 실현을 향해 견지한 가치와 구체적인 이행 수준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 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을 향한 비전2025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막중한 사명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지역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동참

우리회사가 범죄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울산지역 이웃을 위해 회복 지원에 동참했다. 10월 26일 울산지방검찰청(울산시 남구 법대로)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에서 우리회사는 5개 기업과 함께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전했다. 기부금은 범죄 피해를 당해 어렵게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활용된다. 우리회사는 범죄 피해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울산지역 기업 최초로 2016년에 울산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타 기업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 획득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는 우리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해 나눔(sharing)의 핵심가치를 빛냈다. 10월 28일 JW메리어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올해 인증식에서 우리회사는 올해 새로이 인증이 부여된 13개 기업 중 이름을 올려 인증패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다각도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회사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나눔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벼 3억 상당 구매



울산복지재단이 지역 농작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수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년째 온산지역 농가 벼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3일 온산농협 삼평 경제사업장에서 개최된 벼 구매 행사에서 우리회사는 우렁이농법으로 올해 재배된 친환경 벼 전량 3억 원 상당의 3천400포(40kg들이, 총 136톤)를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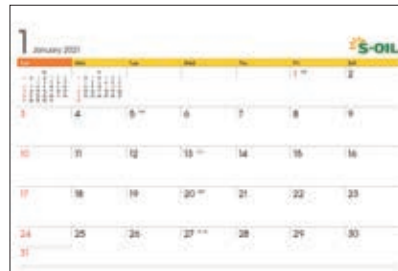
2001년부터 우리회사가 사들인 온산지역 벼는 4천726톤으로 8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역 농업경제에 그늘이 드리운 상황에서 이번 벼 구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구매한 벼를 저온 냉장보관 뒤 2021년 도정해 울산지역 저소득가정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해 달력 제작

우리회사가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를 앞두고 달력을 제작했다. 기능성을 고려한 총 2종(탁상·3단)을 내놓은 가운데 직원들이 손수 촬영한 사진 작품을 탁상 달력 디자인에 적용했다.

달력 속 작품은 사내 사진동호회 소속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수년 동안 국내외 출사를 통해 포착한 장면들이다. 수려한 풍광 속의 이채로운 순간을 잡아낸 각 사진은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로 보는 즐거움을 전한다.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윤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각종 체험기·관람기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동호회 활동기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NOVEMBER 2020

【보직변경】

10.13

고병재(계장.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Safety Foreman)→
제품운영3팀 중간과장

전한환(계장.제품운영3팀 교대과장)→
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김정보(계장.제품운영3팀)→
제품운영3팀 교대과장

10.19

박성재(4급.기계설계팀)→
프로젝트기계기술팀

【입사】

10.8

정화송(3급.제품출하팀)

10.26

임근춘(1급.총무팀 비상계획파트리더)

【정년퇴직】

10.31

박건구(1급.총무팀 비상계획파트리더)

【퇴직】

11.12 이병주(4급.해외운영팀)

【결혼】

10.24 최승범(생산최적화팀)

11.1 박민성(탈황3팀)
우지훈(RFCC2팀)
윤동훈(PP팀)
천효성(PX2팀) 딸

11.7 김선길(제품운영1팀)
문승현(RFCC1공정팀)
김석호(PP팀)

11.8 이길웅(유회유사업팀)
윤도현(남양주지사)

11.14 안재영(장치1팀)
박재현(RFCC2팀)
김규성(안전혁신팀)
서용우(연차보수팀)
차지훈(ERU팀)
김용수(기계2팀)

11.15 최우성(안전혁신팀)
김무진(기계1팀)
공성호(탈황3팀)

11.21 황봉웅(울산지사) 아들

【부음】

10.9 이쉬운(싱가포르법인) 빙모

10.11 김대근(정유3팀) 부친
이민영(계기2팀) 외조모

10.12 이태경(노사협력팀) 조모

10.13 윤도현(남양주지사) 조부

10.19 신승우(장치1팀) 조부

10.20 이동현(MHC팀) 모친

10.23 조홍래(품질관리팀) 빙부

10.24 지재봉(총무보안팀) 부친

10.28 방재원(정유3팀) 조부

10.29 이봉주(계기1팀) 외조모
박성근(Hydrocracker팀) 모친

10.30 여정구(올레핀송유/동력팀) 부친

11.1 김준호(환경팀) 빙모

11.4 김진원(투자공사팀) 조부

11.9 한정욱(용인지사) 부친
김호정(구매팀) 빙모

새로운 기준 안전한 일상

코로나19 5단계 방역 수칙

자료: 질병관리청

생활방역

“야구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 좌석 한 칸 띄우기
- ▶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지역 유행 단계

“예배당 모임은
좌석 수 30%만”

1.5단계

지역유행 시작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미만
*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 정규예배·미사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
 - ▶ 모임·식사 금지
- ▶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

“100명 이상 하객
안 돼요!”

2단계

급속 전파·전국 유행 시작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정규예배·미사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 ▶ 모임·식사 금지
- ▶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

- ▶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 역학조사 역량
- ▶ 감염재생산 지수
-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



기억하세요!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국 유행 단계

“밤 9시 이후 식당은 포장과 배달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전까지만 운영
- ▶ 비대면·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 모임·식사 금지
- ▶ 전교생의 3분의1만 등교

“가족 모임은 9명이 최대”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필수시설(병원·식당·상점)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 1인 영상만 허용
 - ▶ 모임·식사 금지
 - ▶ 원격 수업 전환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공감동화> [나눔] - 흥부와 놀부
나눔으로 인해 마음까지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껴봅니다.
김육현(탈황1팀)



<스포츠라이트> 스피드스케이팅과 발전적 경쟁
스포츠를 접하면서 즐거움을 뛰어넘어
새 가치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손가민(원주지사 손승모 사우 가족)



<연제나 건강>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의 특성을 잘 정리해 두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정주영(안전대응팀)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올바른 김치냉장고 관리법을 고르시오.

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벽에 밀착해 설치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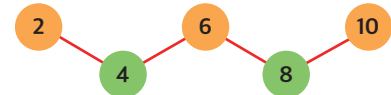
제조 7~10년 주기로
안전점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아래 [보기]와 같이 '노랑-초록-노랑-초록'으로 교차해
2의 배수를 차례로 연결하시오.

[보기]



2	4	4	8	10	8	10
24	2	6	6	12	12	14
26	22	22	20	16	14	18
28	26	28	20	18	16	36
30	24	32	34	36	38	40
50	30	32	44	46	38	40
34	48	48	46	44	42	42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지식 한 뼛> 머니 메이커 펌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보로 여행 기분도 내고
지식도 쌓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정민아(고객, 경북 영천시 대창면 양지촌길)



<두런두런 이야기방> 책과 함께 집중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한 순간에
정말 도움이 된 기사입니다.
김영철(감사1팀)



<팝업 정보창> 화재 예방·대응
작은 실천으로 대형 화재를 물리칠 수 있는
정보가 유용했습니다.
김영식(품질관리팀)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안전한 산행 수칙은?

→ 정답.

①

배낭무게는
체중의 30% 이내로



동절기 산행 시
두꺼운 옷보다는 체온 조절이
용이하도록 얇은 옷을
겹쳐 입는다. 땀에 젖는 것을
대비해 여벌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자료 행정안전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두 가지 모음을 보고 해당될 수 있는
두 글자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ㄱ ㅡ	고을, 소음, 모금, 고금, 도금, 독음, 손등
ㅌ ㅅ	구경, 수영, 주연, 우연, 부연, 수련, 운영
ㅊ ㅅ	가열, 상영, 한결, 막연, 발현, 장면, 간병
ㅊ ㅈ	반사, 감사, 아가, 박사, 감안, 안달, 만감
ㅣ ㅌ	기구, 미술, 지구, 인구, 인도, 임무, 비중
ㅌ ㅈ	국화, 수화, 문화, 주화, 군화, 문과, 후광
ㅊ ㅣ	장기, 만기, 상이, 당일, 만일, 반지, 안일
ㅊ ㅅ	언어, 걱정, 언성, 먼저, 번성, 첨언, 전언

블루투스 스피커

최주호(Alkyation1팀)
이인혜(아로마틱1팀 김진현 사우 가족)
김민철(PO/MTBE생산팀)
김상훈(안전대응팀)

휴대폰 보조배터리

엄태인(탈황1팀)
장유빈(RFCC2팀)
강중순(Alkyation2팀 강필직 사우 가족)
손영일(PX2팀)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